

세계 차(茶) 무역의 허브, 홍콩에도 자리 잡은 커피문화

1 홍콩의 차찬탱 메뉴 2 암차(飲茶) 사진 3 량차 가게 모습

자료 Culture trip 기사, Hongkong living 기사, Tatler 기사



4 아프리카 컨셉의 카페 5 신사동 바스하우스 카페(홍콩) 6 일본 컨셉의 카페

자료 각 카페 페이스북 및 Timeout 기사

홍콩의 차(茶) 문화

홍콩은 연간 약 2억 달러치의 차를 수입해 4천 5백만 달러의 차를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적인 차 무역의 허브(hub) 국가이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으며, 특히 홍콩에는 허브차에 우유를 섞어 만든 밀크티와 식사를 하는 차찬 탕 문화가 발달해 있다. 길거리에는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량차(건강 한방차) 가게가 즐비하다. 량차(열을 식혀주는 차) 가게에는 감기에 좋은 차, 독소제거 차 등 여러 종류의 차를 팔고 있는데 때문에 홍콩에서는 습관처럼 량차 가게 앞에서 빠르게 한 컵 마신 후 가던 길을 가는 홍콩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홍콩의 암차(담섬과 차를 마시는 늦은 아침), 하음차(애프터눈티) 문화에서도 차(茶)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홍콩 사람들은 커피의 쓴맛과 신맛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카페인 함유되어 건강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차를 마시는 비율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가 하락하고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적인 개인 카페들이 인기를 끌면서 커피에 대한 홍콩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커피시장 최신 트렌드

홍콩 사람들은 과거에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셨지만 2000년대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홍콩에 들어오면서부터 홍콩 젊은이들 사이에서 음료 위주의 가벼운 디저트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커피숍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커피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으며 2021년에 접어들면서 센트럴, 완차이, 삼수이포 지역을 중심으로 120개의 개인 커피전문점이 오픈했다. 이러한 개인 커피숍들은 미국적인 컨셉의 인테리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홍콩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의 커피숍 문화는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카페는 공부와 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소인 것처럼, 쇼핑하고 저녁을 먹으며 친구들과 어울리던 홍콩 사람들도 점차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는 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핫한 커피숍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트렌드세터가 되고 있으며 고급 커피 원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커피 애호가들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급증했다. 몇몇 카페들은 여러 원두를 전시해놓고 소비자들에게 직

접 향을 맡아보고 고른 원두로 커피를 제조하고 있으며 원두별 설명카드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원두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카페문화가 이미 발달된 도쿄나 서울에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커피 원두와 커피 머신 등 관련 업계의 매출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재택근무로 인한 인스턴트 커피 소비 증가

커피 애호가들이 늘어나면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홍콩 정부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수요가 더 늘어났다. 홈카페의 인기로 유명 커피 브랜드의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 등의 소비가 확대되었고 이는 한국 커피 조제품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과거에 이미 홍콩 젊은이들은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커피 믹스를 타 먹는 모습을 보고 유명한 한국 연예인이 선전하는 커피 믹스 제품을 한국 여행 기념품으로 사 오기도 하였다. 한국의 커피 믹스를 홍콩의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다.

對홍콩 한국 커피류 수출현황

수출품목	2021 1~4월	2022 1~4월	증감율
	금액(천\$)	금액(천\$)	
커피 조제품	966	1,145	18.5

자료 Kati



2

- 1 여러 원두를 체험할 수 있게 전시해놓은 카페
- 2 원두별 설명카드

자료 Jinklenk 기사 및 여행플랫폼 카페 소개

작성자 홍콩지사 김혜진

Key Point

이미 차 문화가 발달하여 정교하고 다양한 취향을 즐길 줄 아는 홍콩에서 커피 문화의 급격한 성장은 놀랍지 않다. 홍콩에서 인스턴트 커피는 값싸고 질이 낮은 커피로 인식된다. 하지만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의 커피 드립백이나 스틱 종류에도 질 좋은 원두를 사용하여 최상의 맛을 살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 커피 관련 업체나 조제품 제조업체들도 홍콩의 커피시장 성장에 발맞춰 고급 원두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필요가 있으며 원두 종류, 차나 유제품이 섞인 커피 조제품 등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건강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으로 홍콩 소비자의 관심을 끌 전략을 고민해 볼만하다.